

성장통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윤지희 (직장인)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누가 가르치는 건가요?’, ‘애들끼리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청소년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부모님들은 아직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학습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의 역할 없이 청소년들의 자치성을 보장해주었을 때,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대보다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을 ‘미성숙한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능동적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이 국회의원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입법청원안으로 작성해보는 ‘의정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직접 봉사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개발한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선생님이 없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먼저 겪은 멘토의 코칭만 있을 뿐이다. 다소 부족한 결

과물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끼리 고민하고 그들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때때로 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대안이 나오기도 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부터였다.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한 이래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촛불집회로 높아졌을 당시, 나는 이런 관심이 반짝하고 끝나지 않고 지속되길 소망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구성원이며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나 교육 분야에 있어 정책을 수립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며 사회 참여를 반기지 않는 학교와 학부모님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청소년을 만났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토론할 때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지금은 공부부터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직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물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과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청소년도 정치의 주인공

선거연수원이 주최하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프로그램 진행을 의뢰했다. 처음에는 청소년이 유권자도 아닌데 참여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청소년도 정치의 주인공’이라는 슬로건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 페스티벌을 즐기게 하고자 참여를 결심했다. 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제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선거권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찬성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도 잠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교육감 선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선거권 연령을 인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참신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지를 따질 수는 없었지만, 진지하

고 성숙하게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부르며 이민을 꿈꾼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정치적이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해결책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청소년기의 사회 참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참 반갑고 감사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지향했던 청소년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등장과 함께, 더 이상 영어 단어를 잘 외우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청소년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청소년이 필요할까?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행동하며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청소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엄연한 구성원인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 지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